**신1223 Note**

**◆ 피(생명)의 대속(탕감,되삼)은 피(생명)으로써만이 가능하다,**

히0922. 그리고 법규[노모스:(관습의 개념으로서의)율법,법규,원리/히브리어 토라에 상응/구약(예언)시대의 백성이 지켰던 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화(淨化)되며(카다리조:깨끗하게 하다,정결케 하다,정화하다), 그리고 피흘림이 없이는 아무런 탕감(면제, 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도 없느니라.

창0904. 그러나 그 피가 있는 그 생명과 함께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창0905. 그리고 분명코 너희 생명들의 너희의 피를 내가 요구할 (다라쉬:밟다,자주 가다,따르다,찾다,묻다,예배하다,전혀,돌보다,근면하게,요구하다,조사하다,질문,청구하다,구하다,찾아내다,확실히) 것이니라, 낱낱의 짐승의 손에서, 또 사람의 손에서 내가 그것을 요구할 것이니라, 낱낱의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내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니라,

▶창0906. 사람의 피를 흘리는 누구든,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레1710. 그리고 이스라엘 집에 속하거나 너희 사이에서 거류하는 외인(게르:본래 의미는 손님,이방인,외국인,타국인,거주자)들에 속하여, 어떤 종류의 피를 먹는 누구든지 간에 있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魂)을 대면하여 심지어 내 얼굴을 둘 것이며, 또 그를 그의 백성의 사이로부터 잘라낼 것이니라.

레1711. 이는 육신의 생명[네페쉬:나파쉬(호흡하다,~에 입김이 불어지다)에서 유래,호흡하는 생물,동물,생명력,신체,숨,생물,혼령,생명,어떤 사람,영혼]은 피 안에 있음이라, 그리고 너희 혼(魂)들을 위한 한 몸이 되기 위한 배상(벌충)을 만들기 위해, 내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는 혼(魂)을 위해 한 몸이 되기 위한 배상(벌충)을 만드는 것은 피임이라.

레1712.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 중의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지며, 너희 사이에서 체류하는 어떤 외인도 피를 먹지 말지니라,

레1713.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속하거나 너희 사이에서 거류하는 외인들에게 속하여, 먹어도 되는 어떤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포획하는 누구든지 간에 있으면, 그는 그 피를 바로 부어내어, 그것을 흙으로써 덮을지니라,

레1714. 이는 그것은 육신의 생명임이라, 그것의 피는 그 생명을 위해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떤 종류의 육신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모든 육신의 생명은 그 피임이라, 그것을 먹는 누구든지 잘려지느니라,

민3531. 더욱이 죽음의 죄책이 있는 살인자의 생명을 위하여, 너희는 아무런 만족(몸값)[코페르:카파르(덮다,속죄하다,달래다,지워버리다,가라앉히다,제거하다)에서 유래,덮개,마을,(칠하기 위한)역청,속전,뇌물,몸값,생명의 값,만족,총액,(염색하는데 사용되는)해나 식물]도 취하지 말지니라, 대신에 그는 분명코 죽음에 처해져야 하느니라,

민3532. 그리고 그가 그 땅에서 거하기 위하여 다시 오도록, 너희는 그의 도피성에로 달아난 그를 위하여, 제사장의 죽음의 때까지 아무런 만족(몸값/코페르)을 취하지 말지니라,

민3533.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있는 땅을 오염시키지(하네프:더럽히다,타락하다,더럽게 하다,불경한) 말지니라, 이는 피 그것이 땅을 더럽힘이라, 그리고 땅은 피를 흘린 자의 피에 의하지 않고는, 그 안에서 흘려진 피에서 정화될 수 없느니라 {한 몸이 되기 위한 배상을 치를 [카파르:(특히 역청으로)덮다,속죄하다,용서하다,달래다,지워버리다,가라앉히다,정결케 하다,취소하다,자비롭다,제거하다,진정시키다,칠하다,정(淨)하게 하다,화목하다,화목을 이루다,화목] 수 없느니라}

신1223. 오직 네가 피를 먹지 말 것을 확실히 하라, 이는 피는 생명[네페쉬:나파쉬(호흡하다,~에 입김이 불어지다)에서 유래,호흡하는 생물,동물,생명력,신체,숨,생물,혼령,생명,어떤 사람,영혼]임이라, 그리고 너는 고기와 함께 생명을 먹어서는 안되느니라,

시4907. 그들 중의 아무도 결코 그의 형제를 몸값을 치르고 되살(파다:몸값을 받고

석방하다,풀어주다,구출하다) 수 없으며, 또한 그를 위한 몸값(코페르:덮개,역청,속

전,몸값)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느니라.

시4908. [이는 그들의 혼의 몸값을 치르고 되삼은 값이 비싸서, 그것은 영원히 그만

둠(부족함 하달:무기력하다,그만두다,부족하다,멈추다,마치다,실패하다)이니,]

마2628. 이는 이것은 새로운 성약(聖約, 디아데케:처분,계약,언약,유언/ 구약 베리

트:고기에서 유래,고기조각들 사이로 지나감으로 맺는 언약,계약: 창1510 참조)의

내 피이기 때문이니, 이 피는 죄들의 탕감(면제, 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

함)을 위하여, 많은 이들을 위해 흘려지느니라.

행1520. 대신에 그들이 우상들의 오염[알리스게마:(의례적으로)불결,더럽힘]들과 음행(포르네이아: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우상숭배,음란,간음,음행)과 교살(絞殺)된 것들과 그리고 피를 끊도록(아페코마이:막다,삼가다,그만두다)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 쓰는 것이니라②.

Ω행2125.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그들이 오직 우상들에게 올려진 것들로부터, 피로부터, 교살된 것들로부터 그리고 음행(포르네이아:간음과 근친상간을 포함한 매음,우상숭배,음란,간음,음행)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지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라고 우리가 편지를 썼으며, 또 결론을 내렸느니라.

롬0324. 그분의 은혜(호의)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되찾음[아폴뤼트로씨스:구속행위,벗어남,구원,해방,구속(救贖)]을 통해, 값없이 적법하다고 여겨짐이라[디카이오오: 디카이오스(공정한,흠 없는,거룩한,의로운)에서 유래,의롭다고 간주하다,흠이 없다고 여기다(보이다), 의롭고 흠이 없다고 보이다,간주하다,자유하다,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의롭게 되다/ 히브리어 짜다크(도덕적이나 법정적 의미에서 올바르다,올바르게 만들다,깨끗케 하다,정결하다,의롭다,의롭게 하다,의를 행하다,의로운 상태가 되다)에 상응],

엡0107. 때들의 가득 참의 시대에,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 양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기 위해,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의도하셨던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그분 뜻의 신비를 우리

에게 알려지게 하신 후에, 그분께서 온갖 지혜와 신중함 안에서 우리를 향해 풍성하

셨던 그분의 은혜의 풍성하심[플루티조: 부유함,표,소유,풍부,부(富),가치있는 물품]을 따라, 그 사랑 받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 피를 통해 '몸값 치르고 되삼(아폴뤼트로씨스: 되삼,벗어남,구속救贖,해방,구원)' 곧, 죄들에 대한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

골0114.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가 되찾아짐(아폴뤼트로씨스:되삼,벗어남,구속救贖,해방,구원)을, 바로 그 죄들의 탕감(아페시스:자유,용서,구원,탕감,사함)을 가지고 있느니라.